

장백산천지

제 35 호

2007년 6월 1일

금요일

공산당 문화를 해체 (련재-3)

5. 《남녀는 평등하다》

중공은 《남녀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표면상에서 녀성의 지위를 높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녀성을 노역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전통문화는 음양평형을 중시한다. 남자는 양이고 녀자는 음이며 남자는 굳세고 녀자는 부드럽다. 굳센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합하면 조화를 이뤄 다정하게 살 수 있다. 남주인은 주로 밖에서 가정의 책임을 떠메고 자기 안해를 사랑해야 한다. 녀주인은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교육하며 자기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

그런데 해방당한 부녀들은 남성들처럼 온종일 밖에서 싸우고 일해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기르며 집일을 도맡아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는가?

지금 중국은 음양이 바뀌어 녀성이 《굳세지고》, 남성이 《부드러워졌다》. 중국여성들은 우쭐대며 쥐락펴락하지만 남성들은 기가 죽어쩔쩔 맨다. 한 가정에서 안해가 쥐락펴락하고 남편이 존엄을 잃는다면 어떻게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분통이 터진 남편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다른 녀성을 찾고 부부간의 모순이 악화되고 외도가 범람하여 리혼률이 점점 높아졌다. 외국여성과 비교해보면 중국여성은 옷단장이 몸에 맞지 않고 목소리가 거칠며 무뚝뚝하고례절이 없으며 예전의 단정하고 부드러우며 보살펴주는 등 여성미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의사조직이 파룬궁학원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고발



반장기적출조직
의 대변인 터래

중공은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던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불법으로 간혀 있는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장기적출을 하고 있다.» 고 고발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뉴스신문의 5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국제의사조직은 외국인환자가 중국에 가 장기를 의식할 때 갇혀 있는 산사람의 몸에서 안각막, 신장, 간장들을 적출하여 그들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지난 연구토론회의 에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국제의사조직은 《2000년부터

6. 전통문화를 말살했다.

세계상에 모든 고대문명과 문화는 모두 신화(神话)로부터 시작되었다. 만물을 변환시킨 인도의 스브의 춤, 일념으로 세계를 창립한 아테네 위스산의 뜻신, 이집트의 태양신과 만령(万灵)호법, 중국의 반고와 여와의 위대한 신의 자취는 모두 고대문화시작의 래원이다.

수천년래 인류활동은 역시 모두 신과 하늘의 감독과 보호, 계시를 받았다. 중국사람은 자기의 집을 신주(神州)라 했다. 중국사람은 황제를 천자(天子) 즉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일렀다. 중국사람은 하늘과 하느님을 숭배했다. 이것은 중국사람이 우주에 대한 존경과 신앙이다. 중국사람의 기억속엔 오직 반고가 천지를 개척하고 여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여겼다. 신농(神农)은 백초(百草)를 맛보고 인류에게 농사를 짓게 했으며 침구, 역경(易经), 팔괘(八卦) 등 중국고대 반신(半神) 문화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지난 세기로부터 공산주의가 세상을 어지럽혔고 중공이 정권을 탈취한 후 공산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무심론》을 주입하여 전통적인 신앙을 왜곡하고 말살했다. 이리하여 중국의 전통문화는 뿌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하늘 땅과 인성을 반대하고 맑스, 레닌, 모택동을 숭배하는 당문화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끝)

한국 국회광장에서 <천국악단>이 풍채를 펼쳤다

5월은 한국의 《가정의 달》이여서 지난 5월 12일 2만여명 한국민중들이 국회광장에서 H2O 조직에서 주최한 《동심을 되찾고 전민단결에 희망이 넘치는 한국》이란 대경축 활동을 개최했다. 각종 문예공연과 활동은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웠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천국악단》이였는데 그들의 인심을 진감하는 연주는 이번 모든 활동을 고조로 이끌었다.



신전 문화 신령(神靈)을
우통해서는 안된다

왕천경(王天卿)은 건창(建昌) 오늘날 강서(江西) 남성(南城) 사람으로 도술이 아주 현묘했다. 그의 도제(徒弟) 정(鄭) 모를 사람들은 정도사라고 불렀는데 왕천경을 몇년 따라 다니면서 《5 뢰법(五雷法)》을 배웠는데 놀신(雷神)을 청해 하계하여 비를 내리거나 요귀를 제거할 수 있었다. 매번 영험했다.

송고종(宋高宗) 소흥(紹興) 초년에 정도사가 임천(臨川)현에 왔는데, 몇몇 손님들이 정도사를 알현하고는 뢰신을 뵙게 해달라고 했다. 정도사는 처음엔 굳이 거절했으나 이 몇 사람들의 집요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자 마지못해 승낙하였다.

정도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쓰고는 손에 보검을 잡고 높은 소리로 알려주었다. 무척 오랜 후에 찬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하더니 높은 모자를 쓰고 손에 신도끼(神斧)를 든 신인(神人)이 정도사 앞에 다가와 아뢰는 것이었다. 《제자 뢰신이 정법사의 부름을 받고 와서 분부를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정법사는 말했다. 《몇몇 벗들이 자네를 보려 하기에 내가 자네를 불러 왔네. 다른 일은 없네.》 뢰신은 듣고 나서 아주 분노하여 말했다. 《제자는 매번 당신의 부름에 응하려면 반드시 먼저 천제(天帝)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얻어야만 올 수 있나이다. 일을 끝내고 천궁으로 돌아가서도 천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도리어 저를 불러 노리개로 삼았으니 당신의 이런 행위를 저더러 어떻게 천왕에게 복명하란 말입니까? 내 손에 있는 이 신도끼는 나의 이번의 헛행차를 허용하지 않나이다. 정법사님, 당신은 마땅히 이 도끼를 받아야 하나이다.》 뢰신은 즉각 도끼를 들어 정법사의 뇌리를 내리쳤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모두 놀란 나머지 땅바닥에 넘어졌다. 한참 후 깨어나서 보니 정도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잉글랜드 <태양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구소련레닌과학원 노고레드박사는 1962년에 과학자가 작은 사람물고기(人魚)를 산채로 잡은 경과를 진술했다. 과학자와 군사전문을 실은 탐측선은 쿠바바다에서 말할줄 아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피부는 비늘모양이고 아가미가 있고 머리는 사람과 같았으며 꼬리는 물고기와 같았다(오른쪽 사진). 이 작은 물고기는 아트란티스에서 왔다. 몇백만년전의 아프리카주와 남아메리카주를 가로 뒤덮었던 아트란티스는 물밑에 가라앉았다.



당태종은 <5 사(五事)>로
천하를 다스렸다



어느 날, 당태종은 취미전(翠微殿)에 왕림했을 때 신하에게 물었다. <자고로 제왕이 중원(中原)을 평정했지만 융(戎)、적(狄)과 같은 이러한 민족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나의 재주는 고대의 제왕보다 못하지만 성취는 그들보다 크다. 나는 그중의 리유를 여쭈지 않겠으니 너희들이 솔직히 말해보거라.> 여러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각하의 공덕은 하늘땅과 같사오니 어찌 말로 이루다 형용할수 있으리까?> 당태종은 말했다. <그런것이 아니요. 내가 이러한 성취를 얻게 된것은 다섯가지 연고가 있느니라. 자고로 다수의 제왕은 능력이 자신을 륭가한 사람을 몹시 질투했지만 나는 그들의 장점을 보면 마치 자신의 장점을 본것 같았고 사람의 행위와 능력은 완전무결한 것이 없기에 나는 늘 자신의 단점을 버리고 그들의 장점을 취했으며 군주(君主)들은 현명한 인재를 보면 급급히 자기의 수중에 끌어모이고 무능한 사람을 보면 급급히 심연속에 밀어넣지만 나는 현명하고 능숙한 인재를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무능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현명한 인재와 무능한자를 모두 자기 소원대로 되게 했느리라. 대부분 군주들은 정직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비밀리에 해치거나 공개적으로 징벌했는데 어느 조대든지 다 이러했다. 나는 황위에 오른 다음부터 정직한 인사들이 조정에 넘쳤으며 누구도 책벌을 받은 적이 없었느니라. 자고로 제왕은 중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夷),적(狄)민족을 천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들을 누구나 차별없이 대했기에 그들은 모두 부모에게 의지한 것처럼 나에게 의지했느니라. 이상의 <오사>가 바로 내가 오늘 이렇게 성취를 얻게 한 원인이로다.>

작은 사람물고기
말할줄 아는

……이 작은 사람물고기는 하반신이 물고기 모양이지만 두 다리는 변형할수 있어서 륙지로 올라와서 륙지의 문명발전 정황을 손금보듯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이 작은 사람물고기를 흑해의 모 연구소에 보내졌고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